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마 16:13-20)

The Church We Dream

(Matt. 16:13-20)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가신 때는 3년간의 지상사역을 거의 다 마치신 후였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대체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시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존경을 받아야 하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God-Man, 즉 신인 이십니다.

베드로의 이같은 고백에 예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8절).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고, 대답 또한 성경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을 뿐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이기 보다는 사도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신 것은 사도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견고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제사장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위에서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9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서울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바로 이런 신앙고백 위에 펼쳐져 나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히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고 세우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 the text, the time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was after he almost finished his three years of work on the earth. Jesus taught God's word, spread the Gospel, and healed people, and saved spirits.

And Jesus was curious about what people thought who the son of man is, and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Firstly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v. 16).

Who do you think Jesus is? He is not just a great moral man who is only held in respect. Jesus is Christ. He is the Son of God. Jesus is God. Jesus is a real God, at the same time, he is a real man. Jesus is the God-Man.

Jesus said the blessed word about Peter's confession,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v. 18).

In the Bible, first of all, there appeared the word 'church'. Jesus' question to his disciples wasn't personally addressed to Peter, he answered first, but his question was for all of his disciples. Therefore, the word, "On the rock" Jesus said, means that he should build his church on the confession of his disciples. In other words, on the place where they confess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He would build his strong Church.

If so, what does Peter's confession mean? As "Jesus who tames and reigns as my king, and he is not only a high priest who died for us but also a prophet who spreads God's word," his confession, going a step forward, means 'Jesus is just God's son, Almighty God the Creator, the Lord of hosts, and the Son of God who reigns over all creatures on the throne of glory.'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v. 19).

Jesus will give a key of the kingdom in heaven to those who serve with a strong faith for the church of Christ's body. We must live our lives by holding certain things, while living in the world. That is the church, nam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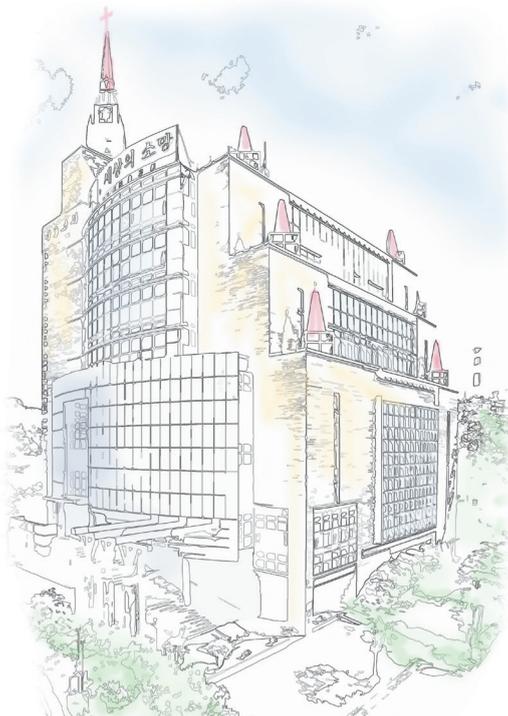
Jesus Christ.

My beloved Christians,

The church we dream is the church of which Jesus is an owner, the king who rules me forever, a high priest who died for me, a messenger who spreads God's word, and God's son that we believe and conf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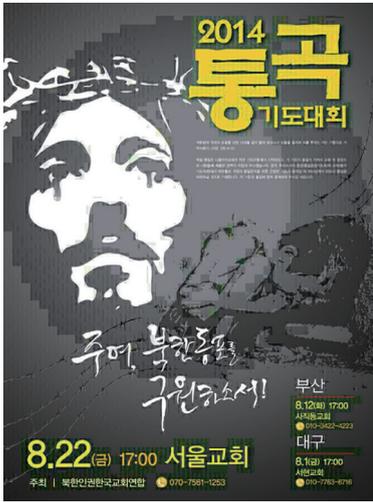
The mission in Seoul Church is spreading this confession, that's why, the gates of Hades will never overcome it and it will be an eternally strong church of Christ's body.

By holding such a wonderful churc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a God's holy worke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여, 북한 동포를 구원하소서 2014 통곡기도대회

8월22일(금)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



한국 교회가 깨어나 북한 동포의 구원과 이 민족의 죄악과 고난을 놓고 통곡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8월22일(금) 오후5시 서울교회 본당에서 울려 퍼진다. 이번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운 원로목사)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북한 동포 구원을 위한 ‘2014 통곡기도대회·통일광장기도회’를 8월 1일 대구 서현교회를 시작으로 12일 부산 사직동교회, 22일 서울교회에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종운 원로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형제들에 무관심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라도 눈물 흘려야 한다”며 “북한 동포의 신음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라도 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통곡기도대회”라고 설명하며 “인권은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인간이 빼앗고 있으며, 탈북자는 난민이며, UN이 탈북난민수용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곡기도대회에 서울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 사랑의 바자 새로운 변화를 꿈꾼다

9월 25일(목)~26(금) / 서울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변화한다.

가. 사랑의 손길을 세계로 향한다.

• 헌당과 아가페타운 지원이 끝남에 따라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를 넘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 생명의 우물과기와 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에까지 사랑의 손길을 전하게 되며 해외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나. 사랑으로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 모든 교구 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미 있고 은혜가 있는 바자회를 통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바자로 자리매김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근검, 절약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의 성숙한 생활습관을 고취시킨다.

다. 주신 재능을 나눈다.

• 올해는 음악에 재능을 가진 분들의 기부를 통해 자선바자음악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다양한 재능을

기부 받아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

라. 성도들의 사업장의 서비스상품도 기부받는다.

• 서비스업을 운영하시는 성도들의 사업장의 상품 즉,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등의 이용권(예 : 한정식 식사권, 카페 이용권, 피마 이용권, 수학수강권, 검진권)을 기부 받아 판매코자 한다. 이를 통해 성도간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

• 사연이 있는 곳을 돕고 사연(스토리)이 있는 물건을 판다.

바. 위탁판매는 최소화한다.

• 기여도는 적으면서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빚는 전문 순회 바자팀의 입점을 지양한다.

금주의 여름 수련회

청년1부·2부 : 8월 12일(화)~16일(토)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청년1부	8/12(화)~8/16(토)	경기도 광주	새로운 도전,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박노철 목사 /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은 전도사

장년부 개강

강사 : 김철홍목사
17일(주) 오전 10시 / 본당

장년부(부장 : 진교남 집사)가 8월 17일(주) 개강한다. 김철홍 목사를 강사로 본당에서 1부에배후에 시작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방송실 영상담당직원 모집

우리교회 방송실에서 영상 업무를 담당할 성도를 찾고 있다. 우리교회 등록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영상 포트폴리오(파일 형태)로 사무국에 제출하기 바란다.

(다음 주 계속)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0)

(문 140) 이사야14:12에 나오는 계명성은 사탄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왕인가요?

(답) 문자적으로 아침의 별 즉 Hellel은 라틴어 별켓역(Vulgate)을 따라 흠정역(KJV)에서 계명성으로 번역했고 70인역(LXX)에서는 'Heosphoros' 즉 아침의 별 또는 새벽을 가저오는 별로 번역되었습니다.

수리아 Peshitta역에서는 'Aylel'로 번역했고 아랍어(Arabic)로 'hialalum' 즉 새 달(A new Moon)로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어 'halel'(아랍어 halla)을 어근으로 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뜻으로 동의어로 아카디아어 'ellu'는 형용사로 찬란한(bright)이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Hellel'을 빛나는 별로 읽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실재에 대한 시적(詩的) 이름입니다. 마치 여수론이 이스라엘의 시적 명칭이듯(신32:15, 33:5, 26, 사 44:2) 또는 호5:13과 10:6에서 야렘이 앗수르나 앗수르 왕을 호칭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이들은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Nabonidus) 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14:13과 기울어져 가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20년은 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W.H. Cobb은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억압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J. Muilenburg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때 바벨론은 앗수르처럼 포악하지도 억압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계명성 곧 아침의 아들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못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Helel'이 사탄임을 증명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 시 귀신들이 도망가더이다 했을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하신 것은 계명성을 번개로 대치시킨 후 사14:12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Helel'과 동일시 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동안 결박하여'(계20:2) 지상의 바벨론의 몰락은 용 된 사탄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계14:8) 이것은 사14장에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아래 내려간 두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는 사탄의 권세요 다른 하나는 그의 인간적 졸병입니다. 벨사살 왕의 생일잔치날 벽에 나타난 손가락의 글씨로 인해 그날 밤에 사탄의 졸병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기독교운동본부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 2014 전국결의대회가 7월 25일에 열린 데 이어 지난 8월 8일(금)에는 새한국 기독교 운동본부가 정동제일교회에서 제 1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의 주제강연은 새한국 기독교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서울교회 원로 이종윤 목사님이 하였다.

이종윤 목사님은 주제강연을 통해 세월호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침몰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체감하면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여할지를 말하며 교

회와 국가의 관계, 기독교인의 올바른 국가관, 기독교인이 어떻게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인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적운동,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 나눔 운동, 긴급절약 및 환경보존운동 등 네 가지로 제시하므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자유, 정의, 평화의 한반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로 거듭나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하였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10대 약속(상) 이종윤 원로목사의 주제강연(하)

8.15 광복절기념

34번째 민족대표



스코필드 박사
(Frank W. Schofield)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69년이 되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3.1 만세운동을 떠올리고 유관순 열사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저변에 민족대표 제34인이라 불리는 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수의학자이며 세균학자인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평신도 선교사로 일제의 만행에 시달리는 조선땅에 들어와 평생토록 조선을 사랑하며 선교와 교육의 삶을 살았다.

스코필드 박사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 에비슨으로부터 초빙을 받아 1916년 조선땅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두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자조차 배워보지 못한 무학자였고 일제 만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조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각계각층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았다. 스코필드 박사는 '석호필(石虎彌)'이란 자신의 한국 이름을 직접 지을 만큼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 사람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그러던 중 3.1운동 계획을 전해 듣게 되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을 결심하며

“한국 국민이여 부정부패와 용감히 싸우는 국민이 되어다오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 되고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

거사 당일 직접 카메라를 들고 3.1운동 현장을 찍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 제암리 교회에서의 주민 학살 사건 소식을 듣고는 한달음에 달려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확인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가옥이 불에 타 무너져 있었고 남편을 구하러 교회에 뛰어들어난 부녀자들은 일제의 총칼에 찢려 개죽음을 당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또 다른 학살이 자행된 옆 마을 수춘리까지 방문하여 일제의 만행을 카메라에 담아 이 두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교본부와 영자신문에 보내어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했다. 이 때문에 스코필드 박사는 일제에게 눈엣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고 마침내 일제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어 눈물을 머금고 조선을 떠났다. 그러나 스코필드 박사는 캐나다로 돌아간 이후에도 조선을 잊지 못하고 '조선에 보내는 편지'를 꾸준히 동아일보 등에 기고하였다.

1945년, 조선은 광복을 맞게 되고, 1955년 스코필드 박사는 정부의 초청을 받아 꿈에 그리던 조선에 다시 돌아와 서울대학교의 수의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리고 당시 과도기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등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며 3.1운동 정신을 전파하는 등 끊임없이



스코필드 박사가 직접 촬영한 제암리 학살 사진 - 서방에 일제의 만행을 알림



캐나다로 추방 후에도 계속 된 스코필드 박사의 '조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동아일보 (1923년, 1926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1970년 4월 81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스코필드 박사는 지금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와 더불어 국립 현충원에 묻혔다.

스코필드 박사는 운명하기 직전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한국 국민이여 부정부패와 용감히 싸우는 국민이 되어다오. 국민은 불의에 항거해야 되고 목숨을 버려야 할 때가 있다.”고 간절하고도 비장한 말을 했다. 그는 또한 “이제 우리는 물질주의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했다. 이미 40여년 전 그때 그의 거시적 안목은 다가올 대한민국의 물질주의를 보았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었다. 세월호 참사는 물질주의의 악폐와 거룩한 가치관의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복 이후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숭한 시련을 이겨내고 태어난 국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이제 많은 이들이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 보자고 두 주먹을 불끈 쥐다.

- 정리 : 허 숙 권사(편집부)

2014 바자를 준비하며

2014바자는...



서문석 장로
(2014바자 위원장)

우리 교회 바자는 그간 참으로 많은 성과를 내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자를 통하여 그간 교회 건축, 헌당, 아가페타운 건축, 불우이웃돕기, 동남아 여러 지역에 우물 파기 등 다양한 사역을 했지만, 다시금 재정립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는 너무 실적에 치우치다 보니 많은 정신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바자 목표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로 정하였고 바자를 통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무엇보다 교제가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의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입니다. 이번 기회에 옷장과 창고를 정리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바자를 기획하였습니다.

가능한 위탁 판매는 최소화하여 주변 상권과의 마찰을 피하여 함께 가는 바자로 꾸며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많은 기증품을 제공해 주고 생산자와 물건을 직접 조달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물건으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므로 교회 인근 주민들이 기다리는 바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끼리 즐기는 바자가 아니라 이웃을 초청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미 있고 은혜 넘치는 바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교회 성도님! 이번 바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의 장에 가까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 그리하여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보고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과 협력하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번 바자로 인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우리 서울교회가 하나로 이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1기 어린이전도학교 수료 - 어린이도 전도할 수 있다 -

천국,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결신이란 복음의 여섯가지 골격으로 초등부 학생 12명 교사 13명이 참여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어린이도 전도할 수 있다'는 표어 아래, '말씀은 힘이이다'라는 구호로 6주간 훈련을 받고 지난 주일 초등부에서 제1기 어린이전도학교 수료식이 있었다.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실제적인 훈련으로 성경놀이에서 핵심 성경구절을 외우고, 스킷 드라마와 함께 여러 가지 만들기와 연습을 통해 전도의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해 나가는 과정이다.

참여한 귀한 어린이들이 복음전도자의 다음세대의 리더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후반기에 있을 제2기 어린이전도학교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월) WRF 한국위원회를 소집한다. 14일(목) 한국군선교연합회 임시이사회 참석한다. 대한민국사랑회 건축절 제정 국민운동 개최 기도를 한다.

■ 교역자 휴가: 장석남 목사(8.11-14) 대행 서명철 목사

■ 주일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 뱀뱀전도회(8.10)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8.17)

■ 금주의 식사 제공: 송인권 장로, 송승준 성도 조영미 성도 (결혼 감사드리며)

2014여름수련회

선교수련회를 떠나며



신두호 집사
(청년2부 회장)

서울교회 청년 1,2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교 수련회'를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떠납니다. 그동안 항상 같은 형식으로 진행됐던 여름 수련회를 '선교'라는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광주 지역의 5개 교회를 섬기는 계기를 통해 우리 청년부는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를 통해 서울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청년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성장의 계기가 앞으로 서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모임에 부흥을 일으키고, 서울 교회를 섬기는 젊은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저희 서울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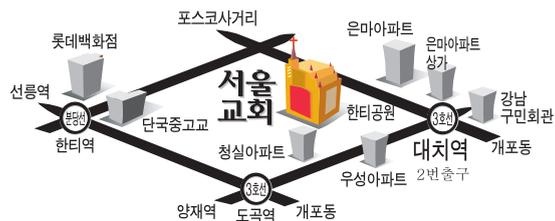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계획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2. 청년부 국내선교수련회를 통해 미자립 교회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3. 제 6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할 일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더욱 더 애국애족하는 서울교회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양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